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9.(목) 18:00 < 6. 30.(금) 조간 > 배포 2023. 6. 29.(목)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면담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광물 요건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확대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방한 계기 양자 면담을 하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통로(채널)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쟁점(이슈)을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세계(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외 우려 기관(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6. 16일)하였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 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승헌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권태성 (044-203-5657)
		담당자	사무관	오인봉 (044-203-5653)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과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이경 (044-203-5735)
		담당자	사무관	윤이경 (044-203-57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